

특별기획

익산시-미륵회 간담회 개최

익산시는 30일 오후 지역발전을 위한 협력과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익산출신 전북도청 공무원으로 구성된 미륵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자영 익산시 부시장과 황현 김영배, 김대중, 최영규 도의원, 전북도청 익산출신 공무원 간부공무원 등은 익산의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도의원들과 익산출신 전북도청 공무원들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원활한 국·도비 확보를 통한 시의 현안사업에 결여 서로 힘을 모을 것을 다짐하고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익산시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던 현안사업과 부족한 사항에 대한 격의 없는 대화를 하며 다양한 의견제시를 했다. 시는 현안사업을 설명하며, 현안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줄 것을 건넰다.

/익산=장왕원기자

원광대 소방행정학과 졸업생 공무원시험 34명 최종 합격

원광대학교 졸업생들이 2016년도 공무원시험에 소방직 32명과 7급 지역안전직형을 비롯해 현재까지 34명이 최종합격하는 성과를 올렸다.

전남·북을 비롯해 서울, 경기, 충남, 경남·북 등 고른 지역에 합격생을 배출한 원광대 소방행정학과는 2015년 48명, 2014년 27명, 2013년 40명, 2012년에 33명이 소방직과 경찰직, 행정직 등 다양한 직종에 합격함으로써 공무원 배출의 산실로서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

특히 해군 정원이 50명인 가운데 매년 20~30명 이상이 공무원 진출을 이어가고 있으며, 올해는 이대호(2008학번) 씨와 최은식(2009학번) 씨가 각각 7급 지역안전직형과 소방간부후보생으로 합격해 주목을 받았다.

한편, 2004년에 신설된 원광대 소방행정학과는 현재까지 전국 최강 소방행정학과로서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익산=장왕원기자

김관영 의원, '자랑스런대한국민' 입법 의정부분 대상 수상

김관영 국회의원(국민의당, 군산)이 지난 29일 국회 행정차관실에서 대한국민운동본부가 주관하는 '2016 자랑스런대한국민대상' 입법 의정부분 대상을 수상했다.

자랑스런대한국민대상은 국내외 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스포츠·기업경영·자치행정 등 사회 각계각층에서 대한민국의 위상과 국격을 높이는 데 기여한 국민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올해 입법 의정부분 수상자는 새누리당 정경준, 정병국, 이학재, 권성동, 이철규, 박성준 의원 등 8명, 더불어민주당은 전혜숙, 남인숙 의원 등 2명, 국민의당에서는 김관영 의원이 수상했다.

김관영 의원은 "이번 수상은 20대 국회 임기 동안 국민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라는 의미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입법 의정활동에 매진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군산=문정곤기자

익산소방서, 새마을회 방문 찾아가는 소방안전교육

익산소방서는 30일 익산시 새마을회를 방문하여 80여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시민들의 체질교육을 통해 안전의식을 배양하고 소방안전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했다. 특히 화재발생 시 적절한 대처방법·소화기 사용법 및 심폐소생술 체험교육을 실시했으며, 초기 화재 시 중요한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2017년 2월 4일까지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 설치도 안내했다.

익산소방서 올해 특수사업인 '찾아가는 소방안전교육'을 가리키는 소방이 아닌 찾아가는 소방으로써 소방안전교육을 특정 대상이 아닌 시민 누구나가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추진하고 있으며, 종교시설 등 각 계·각 층이 모일 수 있는 곳을 찾아 추진 중이다.

/익산=장왕원기자



영화시장 중심 특화 관광 활성화

군산시청 이전 영화동 일대 건축물 수십년간 방치... 관광지 발전 '발목'

군산시 영화동을 근대문화유산 거리에 어울리는 관광지역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다.

일제강점기 격자형 거리로 조성된 옛 군산시청 인근 영화동은 광복 이후 최고의 번성기를 누렸다. 하지만 군산시청의 조흔동 이전을 계기로 상권이 급격히 쇠퇴하면서 영화동 일대 건축물들은 수십 년간 방치돼 왔다. 이 같은 정체성이 불분명한 건축물들은 최근 근대역사거리 조성과 근대관광 활성화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군산시는 지난 2013년 하반기부터 영화동 월명동 일대 간판정비사업을 실시해 업체의 간판과 안내판 등을 교체하는 등 정비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근대역사박물관과 근대역사거리(월명동)를 이어주는 영화동은

오히려 편입률적인 간판정비사업이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으며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어들이지 못하고 있다.

특히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특화된 상품이 개발되지 않으면서 근대문화유산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관광 상품이 전무하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

영화동에서 상점을 운영 중인 김모(55·여) 씨는 "시청이 이전한 뒤 영화동에는 대부분 낡고 허름한 건축물만 남아있다"며 "특색이 없는 영화동은 관광객들이 맛집과 숙소, 길안내 등에 대한 문의만하고 지나가는 관광영화동 월명동 일대 간판정비사업을 실시해 업체의 간판과 안내판 등을 교체하는 등 정비에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영화시장을 중심으로 특화된 관광사업을 내세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일대에 즐길거리, 먹을거리를 조

성하는 등 '여행사업'을 활성화 시켜 관광객의 소비를 이끌어내 지역 상권을 살릴 수 있도록 하자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또한 근대역사박물관·영화동·월명동 근대역사거리를 잇는 도로에 각각의 색깔의 이미지와 색깔을 입혀 관광객들에게 근대역사거리 동선을 쉽게 알려주는 것 자체로도 하나의 관광상품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목소리다.

관광객 이모(59·여) 씨는 "근대박물관에서 월명동 근대역사거리를 찾아가는데, 중간에 지리한 영화동은 근대역사와 어울리지 않는 전혀 다른 옷을 입은 느낌이다"면서 "금강산도 식후경인데 영화동을 비롯한 원도심에서는 공산품 판매만 있을 뿐 특색 있는 먹거리는 찾아볼 수 없어 실망했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곤기자

정헌을 익산시장, 국가예산 확보 '젠걸음'

국민의당 정책협의회·국회 방문 내년도 주요사업 지원 요청

정헌을 익산시장의 국가예산확보를 위해 분주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정헌을 시장은 지난 29일 국민의당 정책협의회와 국회를 방문하여 2017년도 국가예산 주요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정 시장의 이번 방문은 정부예산안이 확정되어 국회제출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추가 예산 확보를 위한 국회대응활동에 돌입하기 위해 이뤄졌다.

시의 주요 현안사업인 익산열린산업단지(국비 651억),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2단계(국비 1,618억), 익산고도보존육성사업(국비 1,158억) 등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국가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서 정 시장은 국민의당 제1호 시장으로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당을 초월해 새누리당 정은찬, 국민의당 김광수 국회의원을 만나 익산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지원 등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했다.

정 시장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 인맥 네트워크 등 모든 지역연망을 집결하여 국회 추가증액에 지속적으로 총력을 기울여왔다"며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정 시장은 8월과 7월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 등 2017년도 주요

사업에 대한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기재부 및 중앙 부처를 방문했으며, 지난 6월에는 국회를 방문하여 이춘석, 조배숙 국회의원 등 전북 도내 국회의원들과 차례로 면담을 갖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국비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익산=장왕원기자

군산시-도스가스 '뮤지컬 브로드웨이 42번가' 공동기획 협약

군산시와 군산도시가스(주)는 30일 기획공연 공동추진 협약 체결을 통해 '뮤지컬 브로드웨이 42번가'를 군산예술의전당 무대에 올리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7개월간 걸친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루어진 결실이다.

두 기관은 협약을 통해 시민에게는 고품격의 공연을 제공하고 시는 예산절감을 기업은 예술문화 활동지원에 동참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욕구를 채워주는 윈윈(win-win)전략을 마련했다.

군산도시가스(주)의 후원으로 추

진하게 될 '뮤지컬 브로드웨이 42번가'는 뉴욕에서 흥행한 시카고와 오페라의 유령 등과 견줄만한 작품으로 뮤지컬의 본고장 브로드웨이를 배경으로 무명의 뮤지컬 배우가 스타로 탄생하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다. 이번 작품은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뮤지컬로 300여명의 눈부신 무대예술가를 담은 30여명의 코러스가 트럼펫 재즈 선율과 함께 선 보이는 화려한 탭댄스와 코인댄스는 14개의 대형 무대장치위에서 30회가 넘는 숨 거쁜 무대전환을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뮤지컬 브로드웨이 42번가

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작품선정 여론조사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장르로 작품성과 대중성을 모두 인정받은 작품이다. 오는 10월 14일과 15일 3회에 걸쳐 군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

군산도시가스(주) 김동수 회장은 "우수한 작품을 군산시와 함께 유치해 예술의전당 활성화 및 기업이윤의 사회 환원이라는 기업이념을 실천하게 되어 더없이 기쁘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예술문화활동에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곤기자



익산시의회·산업건설위원회 농기센터·다송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장 등 방문

익산시의회(의장 소병홍)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연식은 제197회 임시시회(중간) 30일 농업기술센터, 다송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장 등 주요사업장 방문을 실시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실용·연구가 이루어지는 조직배양실, 친환경농업관리실, 국화재배온실 등을 둘러보고 도농복합도시의 특성을 살려 다양하고 체계적인 업무추진을 당부하였다.

또한, 농업인 전문교육 상시교육으로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힘쓰고 있는 농업인교육관과 최근 농민들로 부터 호응이 좋은 농업기계 임대사업, 금년 10월에 개최되는 익산천만송이 국화축제 추진상황을 살펴보았다.

이어, 합영을 다송리, 용지리, 석매리 일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다송권역

단위 종합정비사업지를 둘러보았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우리 농가의 지역소득증대를 위한 매화체험관 추진 현황 설명을 듣고 기초생활기반 조성사업과 경관개선사업 등 기초사업추진에 만전을 다하여 잘사는 농촌, 떠나지 않는 농촌만들기에 함께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한편, 김연식 산업건설위원회장은 사업추진에 있어 무엇보다도 농민과의 소통이 중요하므로 대화와 의견수렴 등 공감대 형성을 최선으로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농기계임대사업 등 좋은 사업들을 많이 홍보하여 우리 농민이 다양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익산=장왕원기자

군산시, 발달장애인 인권보호 전수조사 실시

군산시는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오는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발달장애인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전수조사는 최근 청주에서 실종 지적장애인 대상으로 한 노동력 착취 사건이 발생함에 따른 조치이다.

현재 군산시에 등록된 발달장애인은 총 1,552명으로 집계됐다. 군산시는 이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단체 및 시설을 비롯한 유관기관과의 연계는 물론 읍면동 사회복지담당자 및 통장 등과의 전화상담, 가정방문 등을 통해 대대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번 전수조사는 읍면동에서 전화 및 방문조사를 통해 소재불명자가 발생한

경우 경찰서에 수사뢰를 해 거주지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족에게 조치를 하고 필요시 시설입소 보호까지 연계할 예정이다.

또한 대상자의 생계관리도 예상될 경우 시 주민생활지원과와 연계하여 사후관리까지 보강하는 적극적 인권보호 행정을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김주홍 복지지원과장은 "이번 전수조사를 계기로 지역주민의 관심을 갖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학대 및 노동력 착취 의심 사례가 발견될 경우 가까운 읍면동과 시청, 사법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장애인 인권보호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보건소, '유행성 눈병' 감염 예방 주의

군산시 보건소가 유행성 눈병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2016년 인과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자료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20일까지(제8주) 유행성각결막염 환자는 1000명당 24.8명으로 33주에 보고된 23.1명보다 증가했다.

아플로 눈병으로 알려져 있는 급성출혈성결막염 환자 수는 1000명당 1.0명으로 이전 33주에 보고된 0.9명보다 증가했다.

유행성 눈병의 전파경로는 직접 접촉하거나 수건, 침구물 등 개인용품 등을 통한 간접접촉, 수영장 물에 의해 감염될 수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는 비누를 사용하여 흐르는 물에 손 씻기, 손으로 얼굴과 눈 주위 만지지 않기, 수건, 베개, 담요, 인약, 화장품 등 개인 소지품을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전영태 군산시 보건소장은 "유행성 눈병인 유행성각결막염과 급성출혈성결막염은 전염력이 강한 눈병으로 집단생활 등을 통해 확산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며 "특히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단체생활시설과 수영장에서는 유행성 눈병 감염예방을 위한 개인위생 수칙 준수와 이상 증상이 나타날 경우 반드시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경찰서, 수확철 농기계 교통사고 예방 총력

군산경찰서(서장 김동봉)는 농기계 사용이 많은 수확철을 맞아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및 안전점검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농기계 교통사고 중 30%가 가을 수확철에 발생하고 있으며, 사고 시에는 일몰 전·후, 사고 원인은 농기계 운전자의 조작 미숙과 교통법규 미준수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3년간 군산에서는 6건의 농기계 교통사고가 발생 7명이 사망했으며, 이중 65세 이상 노인은 5명으로 나타났다.

이에 군산경찰은 노후 농기계에 야광 반사지를 부착해주고 농기계 야간운행 자제, 농기계 길가 방치 인하기 등 농기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와 점검에 나섰다.

김동봉 서장은 "농기계 교통사고의 경우 사망률이 일반 차량에 비해 4배나 높으며 "농기계 운전자는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시골길은 운행하는 운전자는 수확철에는 농기계 운행이 많은 만큼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운전을 당부했다."

/군산=문정곤기자